

2026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 7	7.22	회의실	12/15	4	1	17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명규·박봉순·박찬호·설제학·심재현·안유성·양지현·유동국·이해경·조명근·한지혜·황풍년 위원(12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황동현(경영전략본부장), 홍진선(콘텐츠팀장), 서준배(디지털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광고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0	7	2	0	4	13	0	1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3	1	0	14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송편성	시민이 만든 우수한 콘텐츠 방송 바람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가 만드는 TV> 주간 편성	'26.7
보도	반도체 분야 이봉렬 기자 출연 콘텐츠 제작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호남 반도체 어디까지 왔나(8.4), 디지털 콘텐츠 호남 반도체 공장, 3년 만에 완공 가능할까?(7.26), RE 100 바꿀 호남 반도체의 미래(8.5) 등 이봉렬 기자 출연 제작 조치	"
"	지역 뉴스가 서울과 지역에서 반복해 방송되는 부분 제고 필요	뉴스 책임자 의견 전달 조치	"
"	반도체 산업과 지역 발전,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 가져올지 관심 두고 다뤄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점유율 1% 판 뒤집을 반도체 단지(7.28) 통합 첫 살림 핵심은 '반도체'··“기업들 국회로 불러달라”(7.30)	"
"	반도체 공장 설립 장밋빛 미래만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반도체 최대 과제는 ‘군공항 이전’(8.5), <빛나는 나의 도시> 호남 반도체 어디까지 왔나(8.4) 등 방송 조치	"
"	지역민이 궁금증을 직접 묻고 답하는 소통형 토론 바람	토론 프로그램 방송 시 유튜브 시청자 실시간 의견 참여 시행	"
"	<시사용광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토론 구조 마련 바람	제작 시 패널 구성 다양화, 실시간 시청자 참여 시행 및 방송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
"	행정통합 관련 지역주민의 갈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 등 후속 기획 필요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기획보도 <가지 않은 길>(7.27~7.31), <뉴스투데이> 조직개편 반발에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7.27), <뉴스데스크> 첫 조직개편 두고 거세지는 노노갈등(7.29)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다양한 맛 정보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장마철 국룰! 장마 세트(7.23), 챔피언스필드, 주문!(7.30), 여름 여수의 맛(8.5), 소중한 한 끼(8.6) 등 방송 조치	"
"	음식을 특화한 콘텐츠 제작 바람	<대한민국 김치대전> 주최 준비 중, 디지털 콘텐츠 ‘영광굴비의 특별함은 어디서 올까?’(8.5) 등 방송 조치	"
기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에 맞는 방송 변화 필요	<빛나는 나의 도시>(매주 화~목) AI 영상 이미지 제작, 다큐멘터리 <나비처럼 날아올라, STING>(제작 중) 항공 장면,	"

		저화질을 고화질로 향상 등 프로그램 제작 시 AI 활용 조치	
"	곡성지역에 가니까 광주MBC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 않음	곡성, 구례지역 라디오 주파수 안내 조치	"
"	시청자위원회 명칭,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름 변경 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담당 부서 의견 전달 조치	"
"	(시청자 의견) <시사용광로> '호남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 편,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 필요	방송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	"
합계		14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령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방송편성	시민이 만든 우수한 콘텐츠 방송 바람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을 주간 정규편성하고 있음	○		
보도	반도체 분야 이봉렬 기자 출연 콘텐츠 제작 바람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이봉렬 기자 섭외를 확정하고 제작 중에 있음	○		
" "	지역 뉴스가 서울과 지역에서 반복해 방송되는 부분 제고 필요	뉴스 아이템의 선정과 배치 등을 통해 중복 방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	반도체 산업과 지역 발전,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 가져올지 관심 두고 다뤄주길 바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방송하겠음	○		
" "	반도체 공장 설립 장밋빛 미래만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주길 바람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음	○		
" "	지역민이 궁금증을 직접 묻고 답하는 소통형 토론 바람	시청자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		
" "	<시사용광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토론 구조 마련 바람	패널의 전문성, 다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 "	행정통합 관련 지역주민의 갈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 등 후속 기획 필요	지역민은 물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소하는데 앞장서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다양한 맛 정보 바람	지역의 다양한 맛 정보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관광 등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		
" "	음식을 특화한 콘텐츠 제작 바람	김치와 김장문화의 가치 조명 등을 위한 콘텐츠와 사업을 준비 중이며,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기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에 맞는 방송 변화 필요	콘텐츠 제작 시 단계적으로 시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콘텐츠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시의 활용을 강구하겠음	○		
"	곡성지역에 가니까 광주MBC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 않음	곡성, 구례지역은 주파수가 다른 게 이유이며, 라디오 주파수를 적극 안내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명칭,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름 변경 필요	명칭은 방송법에 따른 것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음		○	
"	<시사용광로> ‘호남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 편,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 필요	시청자의 이해가 쉽도록 출연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자막 등을 활용해 설명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7월)

일 시		2026년 7월 22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 원 회	김명규 · 박봉순 · 박찬호 · 설제학 · 심재현 · 안유성 · 양지현 · 유동국 · 이해경 · 조명근 · 한지혜 · 황풍년 위원(12명)		
	회 사	김낙곤 사장,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홍진선 콘텐츠팀장, 서준배 디지털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먼저 시청자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시청자위원장을 추천 바란다.
 - 박봉순 위원 : -우리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전라도닷컴>을 발행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오신 황풍년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박봉순 위원님께서 황풍년 위원을 추천해주셨다. 또 다른 분 추천이 있으면 해 달라. 없으시면 황풍년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는데 동의하는가?
 - 위원 일동 : -동의한다.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그럼 황풍년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번에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 바란다.
 - 박봉순 위원 : -부위원장은 여성 위원께서 맡아 주시면 어떨까? 이전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주신 이미진 위원께서 계속해주시면 좋겠다.
 - 위원 일동 : -동의한다.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오늘 이미진 위원께서 불참하셨다. 이 위원님께 수락 여부를 추후 확인하여 동의하시면 부위원장으로 모시는 걸로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는 황풍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다.
 - 황풍년 위원장 : -전라도 이야기를 26년 동안 기록해온 <전라도닷컴> 발행인 황풍년이다. 보니까 제가 연장자여서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것 같다. 꽤 오래전 광주MBC 시청자위원이었는데, 그때는 강정채 총장님이 위원장이었다. 오랫동안 광주MBC와 가족처럼 지내왔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했다. 광주MBC가 지역을 위해 해온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각계의 훌륭한 시청자위원님들 많으신데 광주MBC가 잘하도록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사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도 무덤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 궁금하다. 황풍년 위원님이 위원장 맡아 주셔서 감사 드린다. 언론계 선배이시기도 하고 <전라도닷컴>을 꾸준히 해오시며 우리 지역 문화의 뿌리를 알리는 훌륭한 역할을 해오셨다. 오늘은 서준배 디지털본부장이 참석했다. 시청자위원회를 넘어서 플랫폼 위원회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방송본부와 디지털본부 두 본부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다. 지상파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주시길 바란다. 플랫폼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 황풍년 위원장 : -주요 업무보고를 해달라.
 - 홍진선 콘텐츠팀장 : -방송본부 뉴스팀은 광주, 전남 통합 출범과 함께 바쁘게 움직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관련 집중 보도가 이뤄진 7월이었다. 앰코테크놀로지의 광주 투자 소식을 시작으로, 삼성·SK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및 정부의 광주 군공항 부지 확정 발표까지 주요 과정을 심층 보도했다. 특히 800조 원대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걸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과 실현 가능성을 연속으로 추적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집중 조명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해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경찰 수뇌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두고 피의사실 공표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 등 수사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논란을 균형 있게 보도하고자 노력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을 앞두고, '행정통합, 프랑스에서 길을 찾다' 기획 취재를 준비 중이다. <가치 않은 길>을 제목으로 7월27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총 5편 보도할 예정이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를 계획 중이다. 광주문화방송, 뉴시스, 무등일보 협업으로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보도하도록 하겠다. '네이버 뉴스' 심사 기간 연장에 따른 대응도 계속하고 있다.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실시간 뉴스 송고와 지역성 관련 내용을 집중하여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콘텐츠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비전 선포식>을 7월2일 광주·목포·여수MBC 생중계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 교육감이 기조 강연을 했고,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

자가 반도체와 호남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문영 국회의원은 AI와 반도체, 호남을 주제로 강연했다. 라디오 재허가 서류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특별시의회의 인물로 윤민호, 박수민, 강수훈, 장성해 의원 등이 초대됐고,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등 5개 구청장도 초대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2030 청년 시의원이 그리는 통합특별시의 내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게 듣는다-민형배 시장 대담, 호남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에게 듣는다-김대중 교육감 대담을 주제로 열렸다.

한편 <테마기행 길>은 8월7일 부분 개편으로 시간대를 이동한다. 오후 6시5분에서 오후 5시5분에 시작한다. 본사와 전국 계열사가 동시 편성하게 된다. 진행자는 길용우 배우로 변경되고, 광주 편은 9월11일 담양 편을 방송한다. 하반기 지역축제 유치를 통한 <가요베스트> 녹화가 있을 예정이며, 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당대회 등 상황에 따라 <시사용광로> 섭외 등을 진행한다.

- 서준배 디지털본부장 : -6.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당일 오후 4시부터 로컬 개표방송을 4부에 걸쳐 진행했다. TV 뉴스 녹화본 AI 기술을 적용해 아이템 분리, 썸네일 제작, 유튜브 업로드, 홈페이지 게시 등 편집과 업로드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뉴스 종료 후 20분에 업로드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광주 then and now'를 새롭게 시작했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 영상을 교차 편집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더 프레지던트>는 7월6일~7월7일 국회도서관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이학영 전 국회부의장을 촬영했다. 다큐멘터리 <STING>은 쇼츠를 매주 업로드 할 것이다. 유튜브 구독자 및 조회수도 대폭 증가했는데, 이봉렬 기자 쇼츠는 조회수 215만을 돌파한 쇼츠도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를 주제로 유튜브용 제작한다. 10분 물로 5편을 제작한다. 영산강 그란폰도 홍보영상은 AI로 제작해 유튜브 업로드 예정이다. TTS 음성 생성형 AI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AI에게 기자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불방 기사나 라디오 뉴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전환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테이프 2,016개를 작업한다. 이상이다.
- 황풍년 위원장 : -업무보고 사항 등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 설재학 위원 : -이봉렬 기자는 이쪽 지역 분은 아닌가? <시사용광로>도 봤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시청자에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고, 그분을 모시고 시리즈를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기도 했다. 디지털 외에도 방송에서도 다루고, 시청자의 질문을 받아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봤다.
- 홍진선 콘텐츠팀장 :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을 담아내 지상파에도 방송해볼 것이다.
- 김낙곤 사장 : -비전 선포식에서 이봉렬 기자가 출연한 쇼츠가 조회수가 215만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방송에 나간 것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편집하여 유통해왔다. 이제는 디지털본부에서 만든 것을 편성에서 한다. 지상파와 디지털이 문법이 다르니까 각자의 문법에 맞춰서 해보고자 한다.
- 김명규 위원 : -시청자위원회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레거시 미디어에 제한된 이름이다. 광주에서 네이밍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플랫폼 위원회 등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름을 다르게 바꾸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김낙곤 사장 : -시청자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이 됐지만 제도와 규범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건의해보도록 하겠다.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 김명규 위원 :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즘은 방송보다도 유튜브 채널에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은 어찌 됐든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지역 기반도 있지만 더 많은 구독자를 필요로 하니 콘텐츠 내용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광주MBC 유튜브의 채널 이름을 보니 지역적인 것에 갇혀 있다. 이름만 보면 지역에 한정된 콘텐츠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황풍년 위원장 :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해보니 <전설의 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적다. 제 예상과 다르다. 나이 든 기성세대에게 선호할 만한 콘텐츠라는 것이기도 하다. <얼씨구 TV>는 제가 20년 전에 출연했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나온다.
- 심재현 위원 :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다. 업무보고 내용 중 계획에서 TTS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 없이도 텍스트만 만들어주면 AI가 방송을 하는 건가?
- 서준배 디지털본부장 : -AI가 기자 목소리를 학습해서 방송하는 것이다.
- 홍진선 콘텐츠팀장 : -하루에 생산하는 기사가 있는데 방송시간에 따라 못 나가는 뉴스도 있다. AI를 통해 뉴스 제작물을 완성하고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박봉순 위원 : -지금 광주에 반도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MBC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림으로써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없앨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고발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 시대는 변했는데 변한 게 없다. 이렇게 가면 공중과 방송이 살아남을까? 기상예보를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데 AI가 나와서 독창적으로 하면 어떨지?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 80년대 방송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기술만 변했다. 변화를

못 느끼겠다. AI 발전은 상상을 초월해가고 있다. 그러나 방송은 변화가 없다. 날씨 정도는 재미있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 박찬호 위원 : -최근에 아침뉴스를 보다 보면 중앙에서 광주 뉴스가 꽤 나온다. 그런데 지역 뉴스로 넘어 오면 같은 뉴스가 다시 반복돼 나온다. 뉴스의 중복, 특히 안 좋은 내용을 다시 듣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는 여수에 갔다 오는데 라디오가 잘 안 잡혔다. 곡성쯤 가니까 다른 주파수가 잡히기도 했다.
- 설제학 위원 : -7월 16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우리 지역의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한 내용을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물론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만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보다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지라는 내용이 더욱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민·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걸림돌 중 하나인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봉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와 무안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한 지역”이라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꽤나 앞서 언급하셨는데, 여러 분야에서 지역의 고급 인력들이 최근 수년 동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방송은 반도체 산업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란다.
- 심재현 위원 : -<시사용광로> 호남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 광주공군기지 이전으로 무안군이 가질지 모르는 불만에 관한 출연자의 발언 가령, “같은 동네”, “하나의 단지”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진행자가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여튼, 무안군 주민들의 마음도 있는 거니까. 동의를 구할 필요도 있는데요.”라면서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돋보였다. RE100 관련하여 과연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로 100%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을 제시해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가 ‘속도전’이었다. 호남 지역의 숙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문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신속하게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인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향후 반도체 수요 전망 및 현재 국내 설비현황, 빅테크들의 재정 상태 및 투자 속도 등 변수가 많다. 우리 지역에 에너지, 용수, 노동력 등 인프라와 교통, 주거, 문화 등 입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도 기업이 우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진행자가 “치밀한 전략”을 언급함으로써 마무리를 훌륭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언론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준다면 자칫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치인과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시각을 견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주길 기대한다.
- 안유성 위원 :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MBC를 보든, 방송을 보면 음식 프로그램만 보게 된다. 우리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세울 게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케이푸드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MBC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음식 관련 축제가 많다. 작년에는 목포 남도음식축제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다. 올해 남도음식큰잔치가 10월에 열리고 예산도 많다. 축제 조직위와 협업을 잘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MBC 수익 구조에도 도움이 되고 제작도 해볼 수 있다. 광주MBC가 잘하고 있는 게 <핑크피쉬>나 김치 관련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방송에도 좋을 만큼 잘 만들었다. 민형배 시장이 음식문화, 관광 이 부분에 역점을 크게 두고 있다. 남도음식 관련해서 사업을 특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특별시와 긴밀하게 역할을 해서 붐을 일으키면 좋겠다. 여러 방면에 고민을 많이 해보면 어려운 시기에 MBC가 살아가고 특화할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저희가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올해는 3일간 하려고 한다. 한자리에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담아 특별생방송, 쇼츠 등 다양한 작업을 할 것이다. 광주MBC가 김치를 통한 문화 발전과 산업화로 연결하고자 한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
- 양지현 위원 : -7월16일 <시사용광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미래 생태계가 걸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다룬 매우 시의적절하고 파급력 있는 기획이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은 좋은 기회였다. 특히 핵심 현안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제시했고 다양한 대안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이해하기 편했다. 다만 방송 초반 라이브 QR코드를 통한 시청자 댓글 참여를 안내했으나, 실제 방송 중 시청자 질문이나 여론이 토론 과정에 다루어지는 비중이 작아 아쉬웠다. 지역민의 궁금증을 패널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소통형 구성이 강화된다면 한층 생동감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7월14일 <정오의 희망곡>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점심 시간대 청취자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 및 활동 아티스트인 가수 ‘운’, 전남대 출신 프로듀서 김유빈을 초청하여 미발매 신곡 및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기획이 인상적이었다. 이 지역의 특색에 잘 맞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즉석 제안으로 이루어진 듀엣 라이브 등 라디오 생방송 특유의 생동감과 유

연성이 크게 발휘되어 신선한 경험이었다.

- 안유성 위원 :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하는데 한식 요리학교를 특별시에 두겠다고 발의한 게 있다. 여기에는 요리하는 사람 본인의 음식을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모델이 왜 필요한지 다큐로 제작하면 붐을 일으킬 것이다.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해 세계적인 케이푸드, 이런 타운이 있으면 세계적인 한식 학교가 탄생이 된다, 전 세계 3대 요리학교가 프랑스, 미국, 일본에 있는데, 세계적인 학교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 왜 호남에 있어야 하는지 제작해서 특별시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붐을 일으켰으면 한다. 음식과 문화 관광을 특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유동국 위원 : -안 위원님 말씀처럼 광주MBC에서 만들 수 있는 자체 콘텐츠를 하려면 촬영부터 해야 하는데 문화와 음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름부터 레거시 미디어 같다. 다른 유튜브 채널명을 보면 스테이션 이미지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 엠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볍고 짧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아닌 디지털 자체 콘텐츠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송출 프로그램을 재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시사용광로>를 봤다. 가장 핫한 아이템이기도 하다. 반도체 공장 부지로 군공항 부지로 선정이 돼가고 있다. <시사용광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쟁점을 뜨겁게 토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KTV 국정 홍보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역방송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협업할 부분도 있겠지만, 방송의 역할 중 하나가 아젠다 세팅이다. 이 방송을 통해 특별시가 더 준비할 내용을 지적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사용광로> 7월16일 방송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반도체 산업 유치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도체 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행정 추진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지역 미래산업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시의성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객관성과 균형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전체적인 토론의 흐름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반대 의견은 충분히 다루지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용수 확보 문제는 단순히 댐의 총저수량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생활용수·농업용수와와의 경쟁,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가능성,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지역주민들의 입장, 무안군과의 갈등, 이전 절차의 현실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시사용광로>는 단순히 지역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공론장의 역할과 함께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 의견도 함께 소개하여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토론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

- 이해경 위원 : -6.3지방선거 개표방송 잘 봤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생각해봤다. 시민이 참여할 때 출연이나 제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만든 우수한 콘텐츠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기자도 있을 것이고, 농어촌 통신원, 청장년층, 시니어 영상기획단도 있는데 시민과 함께 디지털 교류를 해나가는 차원으로 프로그램 한 꼭지 시도해보면 어떨까? 광주MBC는 지역민의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도 있다.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면 좋겠다. 지역민과 가깝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방송을 내보내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공공 콘텐츠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조명근 위원 : -7월9일 <시사용광로>에는 민형배 초대 특별시장의 비전을 들어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초대 특별시장을 스튜디오로 신속히 초대하여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뛰어난 적시성과 기획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방송이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군공항 이전, 주 청사 기능 배분 등 지역의 가장 예민하고 굵직한 갈등 현안들을 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훌륭한 소통 창구 기능을 감당해 주었다. 다만, 초대 특별시장의 거시적인 청사진과 비전을 들어보는 단독 대담 형식의 특성상, 행정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군공항 이전 갈등, 공직자 인사이동 등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20조 원의 통합 지원 예산에 대해 특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해 시청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 있었다. 따라서 광주MBC가 이번 대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갈등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보강, 보완하는 후속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초대 특별시장의 공약한 정책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특별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 한지혜 위원 : -2026년 7월 2일에 방송된 광주MBC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 '민고 가는 시청자 추천 맛집' 코너를 매우 흥미롭게 시청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장어와 한우 같은 든든한 여름 보양식 정보는 물론, 젊은 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 중심의 이색 맛집까지 조명해

주어 온 가족이 함께 몰입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오픈 채팅을 통해 시청자들이 직접 추천한 단골 가게를 리포터가 직접 검증하는 구성 방식 덕분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가득 느껴졌다. 지역의 다양한 맛 정보를 계속해주길 기대한다.

- 황풍년 위원장 : -저는 사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1977년에 제가 중1이었는데 그때 일기장을 보니 77년 8월4일 여천 남해화학이 준공하고 대통령이 온다고 시민들이 모였는데 비가 와서 대통령 방문이 취소됐다. 여수산단이 동부권을 먹여 살렸다. 산단 하나가 들어 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는지 실감했다. 그 당시 산단에 취직하면 성공한 것이었다. 반도체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실감을 못 하니까 담론 형성이 안 된다. 많은 부분 수요가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과 공감의 돼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30~40km도 못 움직이겠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조망하고 이것이 결국은 가져올 영향,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공감을 늘릴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부분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 황풍년 위원장 : -기타 시청자 의견으로 7월16일 방송 <시사용광로> '호남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이기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쉽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도체와 관련하여 여러 새롭고 낯선 용어가 등장하는데 아직 모르는 시청자가 많을 수 있다. 시청자가 더욱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제작 시 참고해주길 바란다.
-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앞으로도 위원회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열띤 토론과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다 해주신 것 같다. 좋은 말씀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